
시니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창업의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김명숙*, 이재현**, 고종욱***

The Effectiveness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for Seniors and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Myeong-Suk Kim **, Jae-Hyun Lee **, Jong-Wook Ko ***

요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니어창업역량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창업교육 내용 및 교육환경이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동 프로그램의 수행기관인 H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 4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주된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대응표본 t검증과 경로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시니어창업역량교육프로그램이 시니어들의 창업의지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내용과 창업교육환경이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시니어, 창업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창업의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program developed to raise the potential of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of senior citizens under the supervision of SMBA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educational contents and environment on program satisfac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composed of 44 trainees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program implemented by H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employing paired-sample t-test and path analysis techniques.

The study found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potential of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of senior citizens and that educational content and environment had positive effects on program satisfaction, which in turn, positively impacted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seniors,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effectiveness, entrepreneurial intention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역사상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32년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고령자 잠재인력을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로생애를 연장시키는 적극적인 고령화대책이 필요하다.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라 선진국들은 정년퇴직제도를 철폐하거나 퇴직연령을 연장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60년도에 도입된

*JD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액티브시니어스 시니어능력개발원장

***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3년 2월 18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3월 20일, 확정일: 2013년 3월 20일

정년퇴직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평균퇴직연령이 55세로 나타나고 있어 타 국가에 비해 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1955년에서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5만 명의 1차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1]. 노후준비가 매우 취약한 베이비붐세대는 은퇴 후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은퇴에 대비한 적절한 일자리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의 주역인 동시에 국제화의 선두에 섰던 세대다. 이들 세대의 효과적인 활용 여하에 따라 숙련 인력의 퇴직 및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라는 위기를 경제성장의 신성장동력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을 복지 수혜의 대상이 아닌 또 다른 가치창출의 주체로 상징하고 이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및 직업능력개발의 차원에서 이들의 특성을 집중분석하여 이들이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노인층의 확대는 사회적 부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고령자 창업지원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2].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으면 고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청·장년층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진국의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3].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재취업 보다는 창업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비중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사회 변화를 감안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층을 시니어라 칭하며 ‘시니어창업육성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 중소기업청은 시니어의 경험과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형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종의 시니어 유망창업업종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7월부터 ‘시니어창업스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2010년도에 800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4000명, 그리고 2012년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니어창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

하여 지난 2년간 시니어창업교육 수행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이 양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나 전문인력 부족, 교수방법 및 교재개발의 부족, 창업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취약한 상태이다.

창업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5][6], 소상공인[7], 퇴직자[8]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탐구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인 시니어창업스쿨에 참여한 시니어교육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한편 창업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이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시니어창업교육의 향후 방향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의지와 결정요인

2.1.1 창업의지 개념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다. 창업의지는 개인의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다[9]. 창업의지와 창업과의 관계는 사회심리학자들의 이론적 모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행동의지에 관한 사회심리학 모형[10][11]에 따르면, 의지는 미래 목표행동에 대한 전념을 나타내며 그런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변수이다.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력 등 세 가지 핵심적 영향을 받는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로 설명되고 있다.

창업은 분명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다 [12]. 창업과정의 일차단계에 해당하는 창업의지는 새로 설립된 기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역량이기 때문에 창업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다[13].

이렇듯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14]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경제 또는 조직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과 자기쇄신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5].

2.1.2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창업 관련 이론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창업의지 결정요인들은 크게 인적자본요인과 사회자본요인 그리고 인적 및 사회자본의 결합요인으로 나뉜다[16]. 인적자본은 미래에 금전적 소득을 창출하는데 활용 될 수 있는 자산을 가리키는데, 형성과정에 따라 선천적 자본과 후천적 자본으로 나누어진다. 선천적 자본은 지능이나 천부적 재능 등의 능력이나 자질을 말하며, 후천적 자본은 교육, 보건, 훈련, 정보 등에 의해 습득된 지식과 기술 등을 말한다. 창업의지에 미치는 인적자본요인으로 가장 많이 탐구되고 있는 것은 창업을 선택하는 창업가의 특질인데, 위험감수성, 통제위치, 성취욕구[17][18], 자율욕구[19], 그리고 개인의 통제욕구[20] 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 특질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조직 내에서 결속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가치로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특정한 목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21]. 사회자본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결합사회자본과 연결사회자본이다. 전자는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인으로는 사회적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이 주로 탐구되고 있다[22].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요인과 관련하여, Reynolds[23]는 경제적 환경 특징, 개인의 삶이나 경력환경의 특징, 개인의 성향 등을 제시하고 있고, Gnyawali and Fogel[24]은 정부정책, 사회경제적조건, 창업 및 경영기술,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Naffziger, Hornsby, and Kuratko[25]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 가족관계, 창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금획득의 용이성, 구체적 사업아이디어, 창업행동이 이익과 매출, 시장점유율과 같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등

의 요인을 창업의지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2.2 창업교육프로그램과 창업의지

2.2.1 창업교육프로그램 실시현황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의뢰를 받아 수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대상 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한편 창업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이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Education Program)이란 주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형화된 일련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교육프로그램에는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된다[26].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니어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컨설팅기업에서 제공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아웃플레이스먼트), 대기업에서 시험적으로 제공하는 퇴직자 준비과정, 2010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진흥원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니어 창업역량교육(시니어창업스쿨)프로그램이 있다.

전직지원프로그램은 세 가지 활동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는 퇴직 충격에 대한 개인의 평상심회복, 둘째는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경력개발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셋째는 적절한 구직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DBM Korea와 HR분야 전문 컨설팅그룹인 Right Management Korea, 한국경제총에서 지원하는 JM커리어가 있다[27].

퇴직자 준비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포스코의 창업교육프로그램과 KT창업교육프로그램이 있다[28][8]. 포스코의 창업교육내용은 적성검사를 통한 창업목표설정, 기업가정신과 창업시장 동향 그리고 교육이수자들의 현황 탐색, 사업아이템의 선정방법, 창업준비방법, 창업 인·허가 및 계약방법, 성공적 창업과 정착방법, 프랜차이즈 창업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었고, KT의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기본이해를 시작으로 창업시장의 현황 및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을 탐색하게 되고, 적성검사를 통한 자신의 성격유형을 진단하고 성격유형을 기본으로 한 창업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례분석을 하여 성격유형별 창업사례 및 성공요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성격유형별 창업업종 아이템선정, 창업전략과 창업성공포인트

탐색, 상권분석과 방법탐색, 사업계획서 작성, 이론으로 배운 상권분석과 입지선정에 대한 현장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창업스쿨은 시니어들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창업 후 조기정착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 시니어창업스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비즈벤처컨설팅그룹, 계명문화대학, (주)케이티,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등이 있고, 이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는 시니어홈케어 서비스, 시니어HR컨설팅 창업과정, 노인복지시설창업, 시니어서비스창업 등이 있다.

2.2.2 창업교육 관련 선행연구

창업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크게 창업교육과정에 대한 실태연구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로 나뉜다. 우선 창업교육과정에 관한 실태연구들을 보면, 한길식[29]은 교과과정 입수가 가능한 184개 4년제 대학으로 수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표본의 40.1%인 75개 대학에 창업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1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47개교(62.7%), 2과목 개설된 학교가 18개교(24%), 3과목 이상 개설된 학교가 10개교(13.3%)로 나타났다. 개설 과목으로는 벤처창업론, 중소기업 창업론, 창업론, 창업과 경영, 창업실무, 창업일반 등 창업에 대한 가이드적인 성격으로 교양강좌로 개설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문화된 창업교과목이 미흡하고 강의방식도 단순한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주미, 오상훈, 양재경[30]은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164개 대학에서 창업강좌가 정규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1/5 정도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학의 자율적인 창업교육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두식[31]의 연구는 절대 다수의 대학생들(92.8%)은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창업 준비단계 교과목으로 창업가정신, 사업계획서작성, 창업자금조달과 운영, 상권분석 및 입지분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경영단계교과목으로는 서비스마케팅, 소비자행동분석론, 창업기업마케팅, 기업성장과 변화관리, 인적자원관리, 인터넷마케팅론, 기술혁신과 기술경영 순으

로 나타났다.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간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유연호, 양동우[32]의 연구는 창업의지가 있고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창업은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의 창업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혁신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성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를 탐구한 김성순[33]은 초기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으로 주로 개인 특성요인, 심리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을 두었으나, 점차 동기부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 등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박철, 강유리[34]는 활발한 창업은 국가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기업활동의 혁신을 위해서 창업교육이 활성화 되어야만 창업의지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주미, 박재필[35]의 연구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을 증가하는 향후 국가 경제발전엔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창업교육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청의 의뢰를 받아 시니어교육생을 대상으로 수행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창업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다.

3.1 연구설계

3.1.1 창업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 수도권 소재 H대학교 창업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니어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H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이론교육 20시간, 실습교육 20시간, 코칭교육 40시간으로 총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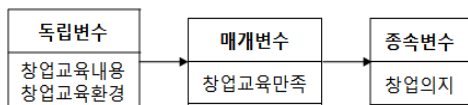
육프로그램의 목표는 창업의지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내용, 창업교육환경, 창업교육만족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법을 이해하고 창업의지를 통한 창업을 유도하는데 두고 있다.

H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니어 창업전문강사들이 시니어창업자의 특성과 변화, 글로벌시니어비즈니스에 사례와 시사점, 노인장기보험제도의 이해와 활용, 개인, 가족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지혜를 중심으로 20시간의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요양전문기관, 고령자체험관 및 전서관, 시니어홈케어서비스 전문기관 등을 방문하여 20시간의 실습교육을 수행한 후에, 10명 1조로 하여 전담코치 한명씩 투입되어 창업의 이해와 실무, 운영매뉴얼, 인력운영과 마케팅, 창업자금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40시간의 코칭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H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실험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를 사용하였다. 창업의지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교육프로그램 시작 전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3.1.2 창업의지 영향요인 연구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창업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H대학교 시니어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창업교육내용, 창업교육환경, 창업교육만족 및 창업의지의 네 변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창업교육내용과 창업교육환경의 두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두 변수가 창업교육만족 변수의 매개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과 관련한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H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니어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인 1차, 2차 및 3차 시니어창업스쿨에 참여한 교육생 60명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도구로는 표준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1차 시니어창업스쿨 교육기간인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2차 교육기간인 2012년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그리고 3차 교육기간인 2012년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60부의 설문지 중 사전 및 사후조사에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44부(회수율: 73%)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61.4%, 여자가 38.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40-44세가 11.4%, 45-49세가 13.6%, 50-54세가 25.0%, 55-59세가 31.8%, 60세 이상이 18.2%의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고졸이 4.5%, 대졸이 47.7%, 대학원 이상이 47.7%의 비율을 보였으며, 소득은 101-200만원이 4.5%, 201-300만원이 29.5%, 301-500만원이 40.9%, 501만원 이상이 25.0%을 비율을 차지하였다.

3.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창업의지 변수는 이재천의 연구[8]에서 사용된 창업의지 척도에서 4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창업교육내용 및 창업교육환경 변수는 조희연[7]이 개발한 척도에서 각각 4문항 및 3문항을 선정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측정하였고, 창업교육만족 변수도 조희연[7]이 개발한 척도에서 3문항을 선정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측정하였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식 5점 스케일(‘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5점 스케일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된 <표1>과 <표2>를 보면, 각각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모든 문항들이 해당 요인에 .50 이상의 높은 요인부하량으로 해당 요인에 적절히 부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은 만족스러운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표1>과 <표2>에 제시

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신뢰도 계수가 창업교육내용은 .741, 창업교육환경은 .732, 창업교육만족은 .822, 창업의지는 .856으로 나타나고 있어,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가 .70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외생변수 측정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		Alpha
	요인1	요인4	
교육내용	창업이론 강의는 적절하였다.	.785	.741
	현장실습 과정은 충분하였다.	.793	
	창업코칭 과정은 유익하였다.	.663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은 창업에 매우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65	
교육환경	강의실 및 기자재는 충분하였다.	.755	.732
	강사(코치)의 강의(코칭) 수준은 적절하였다.	.729	
	전체적인 교육진행이 원활하였다.	.807	
	고유값	3.694	
분산설명비율		52.775	19.314
누적분산비율		52.775	72.089

주: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인 경우만 제시.

〈표 2〉 내생변수 측정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		Alpha
	요인1	요인2	
교육만족	창업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706	.822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 되었다.	.894	
	창업 시 성공에 대해 자신감이 증가 되었다.	.760	
	창업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731	
창업의지	나는 창업 교육 후 창업을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843	.856
	나는 창업 교육 후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868	
	나는 창업 교육 후 창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850	
	나는 창업 교육 후 창업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639	
고유값		4.353	1.246
분산설명비율		54.414	15.572
누적분산비율		54.414	69.986

주: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인 경우만 제시.

4. 분석결과

4.1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시니어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시작 전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창업의지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대응표본 t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3>에 제시되어 있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전 창업의지 평균점수는 3.00점인 반면에 교육 후 창업의지는 평균점수는 3.81점으로 교육전보다 0.81점 높으며, 이러한 교육전-후 점수 차이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니어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시니어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창업의지에 대한 교육수요도 및 효과성

구 분	교육전·후	평균	t값	유의 확률
창업의지	교육전	3.00	-8.276***	P=.000
	교육후	3.81		

4.2 창업의지 영향요인 분석

창업교육내용 및 창업교육환경이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경로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4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들 중에서 성별변수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의 값을 갖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경로분석에는 위계적 회귀분석이 사용되었고, 위계적 회귀분석은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우선 매개변수인 창업교육만족에 대하여 4개의 통제변수를 회귀시켰다. 둘째 단계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에 덧붙여 창업교육내용 및 창업교육환경을 회귀시켰다. 창업의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창업교육만족에 대해 실시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와 다른 점은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로 창업교육만족 변수를 창업의지에 회귀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1]에 제시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에 앞서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창업교육내용과 창업교육환경은 창업교육만족 및 창업의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맺고 있다. 그리고 창업교육만족 변수도 창업의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맺고 있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경우를 보면, 창업교육만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소득은 창업의지와 유의

미한 부적인 상관을 맺고 있다.

〈표 4〉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구분	성별	연령	교육	소득	교육 내용	교육 환경	교육 만족
성별1)							
연령	-0.051						
학력	0.168	-.355**					
소득	0.035	-0.217	-0.069				
교육 내용	0.002	-0.073	-0.026	-.261*			
교육 환경	-0.097	0.027	-0.030	-.337*	.623**		
교육 만족	0.047	-0.118	0.019	-0.200	.834**	.673**	
창업 의지	0.053	-0.194	0.198	-.274*	.597**	.555**	.571**

1) 성별: 남자=1, 여자=0; * P<.05, **P <.01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4개의 통제변수를 창업교육만족에 회귀한 1단계 결과를 보면, 4개의 통제변수가 창업교육만족변수 변이의 7.4%를 설명하고 있으나 p<.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창업교육내용 및 창업교육환경의 두 변수를 추가로 회귀한 2단계 결과를 보면, 이들 두 변수가 창업교육만족 변이의 6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창업교육만족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영향 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교육만족			종속변수=창업의지			
	Beta	t	p	Beta	t	p	
1 단계	통제 변수						
	성별	0.059	0.378	0.354	.038	.253	.802
	연령	-0.197	-1.155	0.128	-.231	-1.412	.166
	학력	-0.078	-0.460	0.324	.088	.540	.592
	소득	-0.250	-1.561	0.063	-.319	-2.082	.044
	ΔR^2	.074		.152			
		F(4, 39)=.785, p=.542		F(4, 39)=1.742, p=.160			
2 단계	독립 변수						
	교육 내용	0.709**	5.470	0.000			
	교육 환경	0.179*	1.358	0.091			
	교육 만족				0.515**	3.928	.000
	ΔR^2	.640***		.245**			
		F(2, 37)=42.528, p=.000		F(1, 38)=15.431, p=.000			
R^2		.715***		.397**			
		F(6, 37)=15.453, p=.000		F(5, 38)=1.776, p=.001			

1) 성별: 남자=1, 여자=0; * p <.10, ** p <.05, *** p <.01

창업교육만족에 대한 개별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창업교육내용($\beta=.709$, $p<.01$)과 창업교육환경($\beta=.179$, $p<.10$)의 두 변수는 창업교육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내용과 창업교육환경이 양호할수록 창업교육만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에서 창업의지에 대해 4개의 통제변수를 창업교육만족에 회귀한 1단계 결과를 보면, 4개의 통제변수가 창업의지 변이의 15.2%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p<.10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만족 변수를 추가로 회귀한 2단계 결과를 보면, 창업교육만족 변수가 창업의지 변이의 24.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창업교육만족($\beta=.515$, $p<.01$)는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교육만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논의 및 결론

중소기업청의 의뢰로 수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니어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 H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44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전 및 교육후에 창업의지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육프로그램이 창업의지 제고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내용과 창업교육환경이 좋을수록 창업교육만족이 높아지며, 창업교육만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시니어들의 창업역량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중소기업청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동 프로그램이 소수의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니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행기관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교육이후에도 꾸준히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지원 및 교육도 필요하다.

둘째,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시간이 80시간에 불과하여 충실한 이론 및 실습교육, 코칭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창업가정신,

사업아이템, 환경분석, 사업계획서작성 관련 이론교육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습교육도 참관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무위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실습기관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실습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도 중요하지만, 이론, 실습 및 코칭교육을 담당할 강사의 능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성과 아울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시니어 창업전문 강사들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지 H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니어창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하나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타 수행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분한 숫자의 자발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44명이라는 소수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충분한 수의 피험자를 확보하여 실험집단과의 비교를 위해서 통제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한정해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창업의지 이외에 다양한 창업역량 관련 지표들을 사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교육 이수자들의 실제 창업 건수도 함께 검토한다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이.
 [2] 변재관(1999), 노인인력 활용의 활성화 방안-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연구, 14, 91-131.
 [3] 유혜원(2001), 생산적복지 관점에서의 노인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중소기업청(2010), 시니어창업육성지원정책.
 [5] 황진선(2006), 대학생의 창업교육요구도와 창업의지,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현주(2011), 창업교육 및 개인특성이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부산지역 전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조희연(2010), 소상공인 창업교육만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재천(2010),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T퇴직자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Krueger, N. F., and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5(3), 315-330.
 [10] Ajzen, I.(1982), Equity i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In: J. Greenberg and R.L.Cohen, Editors, Equity and Justice in Social Behavior, Academic Press, New York.
 [11] Ajzen, I., and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2]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442-454.
 [13]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14] Veciana, J. M., Aponte, M., and Urbano, D.(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 165-182.
 [15] Shapero, A.(1981),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Kent, D. Sexton and K. Vesper, 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72-90.
 [16] Shapero, A., and Sokol, L.(199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A. Kent, D.L. Sexton, & K.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actice-Hall. 72-90.
 [17] Brokhaus, R. H., and Horwitz, P. S.(1984),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D. L. Sexton and R. W. Smilor, 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Ballinger, 25-48.

[18] 윤방섭(200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19] Sexton, D. D., and Bowman, N. B.(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20] Greenberger, D. B., and Sexton, D. L.(1998),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3), 107.

[21]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22] Putnam, R. D.(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23] Reynolds, P. D.(1991), Sociology and entrepreneurship: concepts and contribu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2), 47-70.

[24] Gnyawali, D. R., and Fogel, D. S.(1994),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25] Naffziger, D. W., Hornsby, J. S., and Kuratko.(1994),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29-42.

[26] 김대현, 김석우(2006),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27] 구관모(2004), 전직지원활동 특성이 퇴직자 및 잔류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8] 이병국(2008), 포스코의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분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한길석(2007), 창업교육 체계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7, 379-405.

[30] 김주미, 오상훈, 양재경(2007),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31] 정두식(2012), 대학생의 창업교육선호도와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7(6), 373-394.

[32] 유연호, 양동우(2008), 창업의지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인요인 그리고 창

업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21(5), 2347-2368.

[33] 김성순(2009),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4] 박철, 강유리(2010),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에 관한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32(2), 225-246.

[35] 김주미, 박재필(2011), 국제간 비교연구를 통한 기업가정신 지수 표준모델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11(05).

김 명 속



- 2004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기술경영학과졸업(석사)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졸업(박사)
- 2011년 7월~2012년 2월 : JD경영연구원(책임연구원)
- 관심분야 : 실버산업,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및 창업, 인사관리

· E-Mail: jarakim65@naver.com

이 재 현



- 2013년 2월 :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졸업(석사)
- 2012년 3월 : (주)액티브시니어스 시니어능력개발원(원장)
- 관심분야 : 퇴직지원서비스, 지식서비스창업
- E-Mail : jhmisy@hanmail.net

고 종 욱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학사)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석사)
- 1996년 5월 : 미국 University of Iowa 졸업(사회학 박사)
- 1990년 3월~2000년 2월 : 중부대학교 교수

- 2001년 3월~2013년 현재 :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인사조직, 방법론
- E-Mail : jarakim65@naver.com